

[종합]
거래액 56조 '코인 공룡'
회원자산 현황 분기별 공개
03



Economy

코스피	2499.75 (-10.48)	코스닥	834.91 (+4.92)
금리 (미국 3년)	2.17 (+0.02)	환율 (원/달러)	1071.90 (+4.80) (10일)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개혁… 노사정 대화 복원”

출생률 목표제시 보다 ‘삶의 질’ 해결이 먼저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

(3부) ①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국가 주도 정책 공감 부족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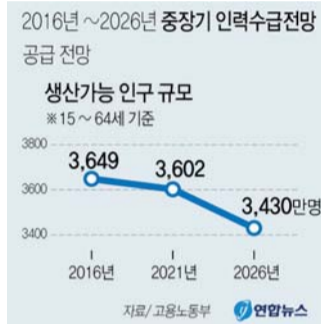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는 오는 2026년까지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인 암울한 전망이 담겨 있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주 원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낭패를 봤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국민적 공



감이 부족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저출산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는 당연한 권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5면에 계속)

/최신용 기자 grandtrust@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북핵 해결 도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 끊임없이 소통 강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9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키로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선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가능하면 고위급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지난해보다 16.3%나 올라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다소 혼란스럽고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고용 위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취임 후 두 번째이자 신년으로 처음인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25분 가량 신년사를 발표하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직접 지명해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전날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면서 “당장의 통일을 원하되 단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천명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될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

성돼야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담보돼야 한다.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성사된 남북 대화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추구하는 노선과 다르고 정책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엔 (미국과)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북한이 도발할수록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

왔는데 그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국제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더 하나가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신년사 첫 부분을 ‘일자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면서 “▲추경 예산 집행 ▲정부 지원체계 전면 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타협을 통한 최저임금 16.4% 인상 ▲일자리 상생을 위한 노사간 노력 등이 모두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보험 지원, 4대 보험료 세액공제 등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잘 이용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앞으로 제기될 노동분야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과 끊임없는 소통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면서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평창올림픽 후원 나선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평창올림픽조직위)와 함께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신동빈 롯데 회장, 성기학 영원아웃도어 회장 등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계는 그동안 여러 동계종

목의 꾸준한 후원을 통해 한국이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보탤”면서 “올림픽 유치 당시에도 여러 경제계 인사들이 체육계 및 정부 인사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축사에서 “경제계의 노력 덕분에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후원사를 이미 확보했고 그동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장권 판매도 부쩍 늘었다”면서 “경제계의 도움이 정부나 조직위원회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양승훈 기자 ysw@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가 10일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후원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뒷줄 단장) 등과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가전쇼(CES) 2018’이 9일(현지시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한 여정에 돌입했다. (왼쪽부터)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전시장에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정은미 기자

전세계 4000개 기업 ‘첨단 신기술’ 각축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가전쇼(CES) 2018’이 9일(현지시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한 여정에 돌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가전·IT 4000여개 기업, 18만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CES의 슬로건은 ‘스마트

시티의 미래(The Future of Smart Cities)’다. 지난해 ‘스마트 홈(가전제품의 연결)’에서 연결성(Connectivity) 개념이 도시 단위로 확장된 것으로, 올해는 ‘스마트시티(도시의 공공기능을 연결)’의 모습이 그렸다.

이러한 주제에 맞게 전시장을 마련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존재감을 자랑하듯 몰려드는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관련기사 8면)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참가 업체 중 가장 큰 2768㎡ 규모

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시장은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146형 모듈러 TV ‘더 월’ 전시관에는 관람객이 몰려들어 걸기도 힘들 정도였다.

LG전자 전시관 역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인공지능(AI) 전시존인 ‘LG 씽큐 존’에는 LG가 구현하고 하는 미래 AI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밀려들여왔다.

이번 CES에 처음으로 수소연료전지 전기차(FCEV·수소전기차) ‘넥소(NEXO)’를 공개한 현

대자동차 전시장에는 이를 보려는 관람객들로 전시장이 인파에 둘러싸였다.

이날 라스베이거스에는 화려하게 개막한 CES를 질투하듯 약 110여일만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주요 전시장인 컨벤션센터(LVCC)는 비가 드문 사막의 라스베이거스에 지어져서인지, 천장 곳곳에서 비가 새면서 삼성전자 등 일부 업체가 빗물 받는 통을 설치하는 등 웃지 못할 모습도 연출됐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